Vol 5, No. 2, December, 2011 제 5 권, 제 2 호, 2011년 12월

나 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

대한심폐소생협회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011년 12월 (통권 제 10 호)
발행일 : 2011년 12월 30일
편집인 : 고재곤
발행인 : 김성순
발행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제 작 : 군자출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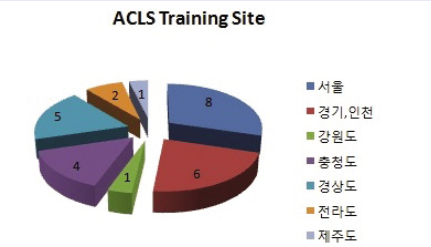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ACPR) Newsletter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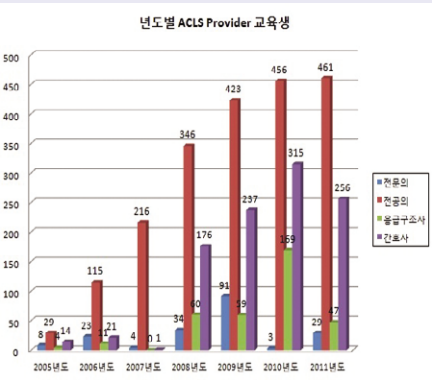
1 News Highlight
2 CPR 컬럼
3 함께 배워요! CPR 교실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 춘무-기획 국제 교류 위원회 소식
- BLS 위원회 소식
- ACLS 위원회 소식
- 교육위원회 소식
5 국내 첫 인증 ACLS 프로그램인 KALS (한국전문소생술) 교육과정 개발

한눈에 보는 CPR 교육 통계

1. 지역별 ACLS TS 수



2. 년도별 ACLS 교육생 수



협 회 사 무 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5-1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209호 대한심폐소생협회
TEL : (02) 393-0533
FAX : (02) 2165-0123
http: //www.kacpr.org

News Highlight

'가슴압박 소생술' 대국민 홍보사업 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두달간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재정후원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나 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다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가슴압박 소생술' 에 대한 교육영상물을 큰길가에 위치한 대형 LED 전광판에서 상영하는 '가슴압박 소생술 대국민 홍보사업' 을 진행하였다.

이 영상물은 일반인들이 보고서 '가슴압박 소생술' 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20초 분량으로 쉽게 제작됐으며 서울(강남역, 광화문, 신촌, 서울역, 명동)과 부산(서면 및 해운대)에 위치한 7군데의 대형 LED 전광판에서 반복 · 상영되었다.

협회는 2010년 10월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개정된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라서 2011년 5월에는 우리나라의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여기에서 심폐소생술 단계를 크게 간소화하여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한 뒤에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슴압박 소생술' 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는 '가슴압박 소생술' 이 심정지 발생 초기에 인공호흡을 함께 시행하는 표준 심폐소생술과 비교해서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며 '가슴압박 소생술' 이 일반인들이 보다 따라 하기 쉽다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에 의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매년 많은 심정지 환자가 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슴압박 소생술' 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 가을에 거리에서 LED 전광판을 통해서 이 영상물을 시청한 일반 시민들이 향후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 '가슴압박 소생술' 을 바로 시행하여 귀중한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